

일본반동들에 의한 조선동해의 《일본해》표기는 란폭한 역사외곡행위

김 은 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른 민족의 역사를 외곡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그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 역사를 외곡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습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165페이지)

오늘 일본반동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재침 야망실현에 발광하고있으며 그 중요한 고리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를 란폭하게 외곡하고있다.

조선동해에 대한 《일본해》표기가 일본반동들의 란폭한 역사외곡행위로 되는것은 첫째로, 조선동해가 우리 나라의 력대 문헌자료와 지도들에 일본바다가 아니라 명백히 우리 나라 바다로 되어있기때문이다.

우선 조선동해라는 이름은 우리 인민이 고대로부터 동해를 개척하는 과정에 생겨나고 굳어져온 이름으로서 문헌자료에 명백히 기록되어있다.

우리 인민은 고대시기부터 수천년간 동쪽바다를 개척하면서 동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B.C.30세기초 단군에 의하여 성립된 고조선(단군조선)은 B.C.3천년기 후반기 조선반도전체와 료하하류류역일대, 북류송화강일대, 남연해주일대를 차지하였다. B.C.15세기 중엽경에 단군조선이 후조선으로 교체되면서 단군조선의 후국으로 있던 부여, 구려가 독자적인 국가로 성립되고 진국은 B.C.12세기경에 독자적인 국가로 발전하였지만 그 영역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고대시기 조선동해는 오늘의 조선반도와 남연해주의 동쪽바다를 포괄하였다.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이 조선동해에서 물고기잡이 등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는것은 조선동해의 한가운데에 있는 섬인 울릉도가 개척된데서 잘 알수 있다.

《울릉도검찰일기》에는 19세기말 부호군 리규원이 봉건정부의 지시로 1882년 5월 조선동해의 울릉도를 답사조사한 후 이곳에 고인돌이 수십개나 있다고 기록되어있다.

고인돌은 우리 나라 고대시기 노예소유자무덤으로서 울릉도에 이러한 무덤들이 있었다는것은 조선동해연안 주민들이 매우 이른시기부터 울릉도에 거주하면서 물고기잡이에 종사하고있었으며 그 주민집단은 노예주와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져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대시기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투쟁과정에 바다이름도 조선바다의 동쪽이란 의미에서 정식 동해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반영된 동명왕전설과 동부여전설에 의하면 고대말 북부여와 해부루의 재상 아란불의 꿈이야기에 동해가섭원으로 피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대시기에 이미 동해표기를 정식 사용하고있었다는것을 엿볼수 있게 한다.(《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동명성왕 즉위전기, 《삼국유사》 권1 기이2 동부여)

고대시기에 이어 삼국시기에도 조선동해는 우리 선조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개척되었으며 삼국시기 우리 선조들은 조선동해의 울릉도와 그 주변의 섬인 독도를 차지하고 이를 거점으로 물고기잡이와 일본열도에로의 진출을 더욱 적극화하였다.

4세기말이후 고구려는 삼국통일을 위한 남방진출을 강화하면서 조선동해의 넓은 바

다를 자기의 수중에 장악할수 있었다.

그 과정에 고구려주민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이란 소국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거점으로 일본열도의 노포반도에 진출하여 그 내륙지방의 나가노현 등지에까지 들어가 고구려계통소국을 형성하였다. 신라주민들은 2세기이후 조선동해를 거쳐 일본열도의 서북부해안지대인 이즈모지방에 진출하여 신라계통소국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6세기 초 신라봉건국가는 북방진출을 강화하면서 512년 조선동해의 울릉도에 있는 소국인 우산국을 정복하여 자기의 관할밑에 두었다.((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지증왕13년 6월)

이처럼 동해를 개척하기 위한 고구려, 신라주민들의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면서 조선동해에 대한 관찰조사사업이 심화되었고 동시에 동해라는 이름이 우리 나라의 동쪽바다를 가리키는 의미로 역사문헌들에 많이 기록되게 되었다. 47년에 고구려의 동해사람 고주리가 고래고기를 바쳤다는 기록, 245년 동해사람이 미녀를 바치니 고구려왕이 후궁으로 삼았다는 기록, 416년에 세운 《광개토왕릉비》에 《동해고국연》이라는 기록 등은 고구려에서 동해표기를 널리 사용하였음을 알수 있게 한다.

한편 조선동해의 한 부분을 차지한 신라에서도 236년 동해에서 큰 물고기가 세마리나 나왔다는 자료, 512년 우산국이 동해에 있는 섬이라는 자료, 639년 동해물이 빨갛고 뜨거웠다는 자료 등은 동해표기가 자주 리용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발해, 후기신라시기에 들어와서도 조선동해에 대한 개척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동해라는 이름도 계속 사용되었다.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으로서 오늘의 함경도와 연해주지방을 차지한 후 조선동해를 거쳐 일본과 수 십차례의 사신거래와 무역을 하였다.

후기신라는 동해개척이 전기신라처럼 활발하지 못하였지만 여전히 계속 진행되었다. 699년 동해물이 피색으로 되었다는것, 742년 효성왕이 죽자 그의 요구대로 그 유골을 불태우고 동해에 뿌렸다는것, 782년 꽃음포(경상북도 영일군)물이 동해물과 《짜웠다》는 등의 기록은 여전히 조선동해를 자기의 령해로 간주하고 동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특히 후기신라에서 국가적으로 동해를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사상의 대상으로 숭상한것은 동해가 당시 우리 나라의 바다로 간주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삼국사기》권7 신라본기7 문무왕 거년 7월. 《삼국유사》권2 기이2 만파식적)

첫 통일국가 고려시기 인민들의 힘과 지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동해개척과 동해표기사용이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 동해는 그 범위가 이전시기와 같이 연해주앞바다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 이남까지밖에 포괄하지 못하였으나 국가를 대표하는 별칭으로, 제사의 대상으로 숭상되고 크게 개척되면서 그 이름이 자주 사용되었다. 실례로 928년 고려왕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발과 전쟁과 같은 음흉한 생각을 버린다면 동해의 끊어진 전통을 다시 이을수 있었다고 한것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고려사》권1 세가1 태조11년 정월)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동해를 제사지내는 사당인 《동해신사》가 교주도(강원도) 익령현(양양군)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려시기에 바다와 산을 제사하는 《해독익신》사당이 동해, 서해, 남해바다가에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동해가 국가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됨에 따라 고려는 한가운데 있던 우산국을 여전히 자기 지배밑에 두면서 동해개척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 우산국은 처음부터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의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려는 그곳을 자기의 령토로 간주하고 지배하였다.

고려는 903년 우산국의 우릉도(울릉도)에서 백길, 토두를 보내여 토산물을 바치자 그

들에게 정위, 정조라는 벼슬과 작위를 주었고 《고려사》 권1 태조13년 8월) 1018년 11월 우산국이 너진의 침습을 받아 농사를 짓지 못하였을 때 리원구를 그곳에 파견하여 농기구를 보장하는 등 크게 도와주었다.《고려사》 권1 현종 9년 1월)

고려에 이어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여전히 동해는 관찰대상, 제사의 대상으로 숭배되고 크게 개척되었다.

실례로 1415년 양양지방에서부터 길주지방까지 동해의 물이 범람하여 높이가 5~13척이 되었다는 기록(《태종실록》 권29 15년 4월 임신), 1565년 동해바다가의 물이 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기록(《명종실록》 권31 20년 3월 임자), 1647년 동해의 물이 거꾸로 흘렀다는 자료(《인조실록》 권48 25년 4월 정축), 1737년 동해에 또다시 붉은 조수가 밀려와 크게 논의하였다는 자료(《영종실록》 권46 13년 11월 병진)들을 들수 있다.

1414년 2월 조선봉건왕조는 산천에 대한 제사규정을 정할 때 강원도의 동해를 국가적인 중간제사장소로 정하였고(《세종실록》 권28 14년 2월 신유일) 1437년 제주에서 바다가와 산천의 실패를 정할 때 강원도 양양부에 《동해의 신》을 정하였다.《세종실록》 권76 19년 3월 계포)

이러한 배경속에서 조선봉건왕조시기 동해는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투쟁의 활무대로 더 활발히 리용되었다.

17세기부터 조선동해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략과 략탈이 강화되자 동래어민 안룡복은 1693년 배를 타고 동해를 거쳐 일본령토의 호끼번주를 찾아가 담판을 벌리고 울릉도, 우산도(독도)가 조선의 섬들이라는것을 인정시키고 《판백》(에도막부의 책임자)의 서계(확인서)까지 받아내었으며 1696년에 그것을 재확인시켰다. 그후 조선봉건왕조는 독도에 대한 순찰제도를 실시하여 조선동해에 대한 주권행사를 계속하였다.

근대시기에 들어와 19세기말부터 울릉도에 대한 《개척정책》을 실시하면서 1882년 리규원을 검찰사로 하는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한데 이어 룡지인민들을 이곳에 이주시켜 농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이 섬의 행정관으로서 도장을 임명한데 (《승정원개수일기》 광서8년 8월 2일) 이어 1883년 3월 개화파의 중심인물인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 겸 포경사로 임명하여 조선동해의 울릉도, 독도개척사업 등을 맡아보게 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발표하면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석도)를 포함한 동해의 여러 섬들의 령유권을 온 세상에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1 700명(400호)으로 크게 늘어나고 그들의 창조적투쟁에 의해 경작지가 7 700마지기로 확장되었으며 이 과정에 동해를 통한 래왕이 빈번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동해가 고대로부터 수천년간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투쟁의 활무대로 되어왔고 동해가 그들이 쓰던 표기로 당당히 기록되고 사용되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또한 조선동해는 우리 선조들이 제작한 력사지도에도 력력히 표기되어있다.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해당 시기 국가의 관할밑에 편찬되고 매개 나라, 민족이 사는 령유권을 표기하는 법적성격을 띤 문서이다. 그러므로 지난 시기 력사지도를 가지고 당시 매개 나라의 룡지와 바다, 섬들의 령유권이 많이 서술되고 논의되어왔다.

조선동해 역시 우리 나라 력사지도에 기입된것은 동해가 조선의 바다였음을 다시한번 확증해준다.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8도총도》라는 조선전도에는 《동해》라고 표시되었고 17세기의 《8도총도》, 《여지도》, 18세기의 《천하지도》, 《해동지도》들에도 《동해》표기가

있다. 그리고 1907년에 편찬된 《대한전도》와 《대한신지지》, 1908년에 제작된 《대한제국지도》, 1909년에 출판된 《대한전도》에도 조선의 바다라는 의미로 조선해로 표기되어있다.

이처럼 조선의 력대 문헌자료들과 지도들에는 조선동해가 일본의 바다가 아니라 조선의 바다로 명백히 표기되고 리용하여왔는데 이것은 조선동해에 대한 일본의 《일본해》 표기가 란폭한 력사의곡행위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동해에 대한 《일본해》표기가 일본반동들의 란폭한 력사의곡행위로 되는것은 둘째로, 조선동해의 리용과 표기가 침략과 날조로 일관되었기때문이다.

일본의 조선동해의 리용은 뒤늦게 그것도 침략으로 시작되었고 그 표기도 날조로 일관되어있다.

원래 일본은 대륙과 떨어져 고립된 위치에 있는데다가 경제, 문화수준이 뒤떨어지고 항해술이 낮았기때문에 조선동해리용이 거의 없었다.

14세기 후반기 조선동해에 대한 왜구의 침습으로 침략과 랍탈이 시작되고 17세기에 그것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왜구들은 조선동해가 자기 나라 바다가 아니기때문에 동해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주변의 물고기랍탈을 위해 자기의 도꾸가와막부정부로부터 《죽도도해면허》(죽도인 울릉도의 바다로 건너갈수 있는 허가증)를 발급받아 이 수역으로 몰래 기여 들어가 물고기를 많이 랍탈하였다.《죽도도설》 상 《백기민담기》)

그후 17세기말 안룡복을 비롯한 어부들에 의해 1697년 일본 에도막부의 금지령이 내리자 19세기 중엽까지 왜구들의 조선동해출입은 근절되게 되었다. 《죽도고증》에 의하면 19세기 전반기 일본의 야우에몽이라는 어업가가 조선동해의 울릉도부근에 물고기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동해면허》를 신청하였는데 일본의 해당 관청에서 외국의 바다 즉 조선동해로 가는것이라고 불허하며 금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그 주변이 조선의 령역이라는것을 인정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제작된 《아시아전도》(1794년 제작)를 비롯한 20여개의 력사지도들에도 모두 조선해로 표기하였다.

한편 일본은 19세기초부터 력사지도에 조선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면서 일본렬도 남부의 태평양상을 일본해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조선동해를 처음부터 조선의 바다로 철저히 인정하고있었으며 뒤늦게 사용한 《일본해》는 일본의 남쪽바다를 가리키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1868년 《명치유신》후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랍탈을 강화하면서 제멋대로 조선동해에서 물고기를 랍탈하고 이곳을 《일본해》로 외곡하여 쓰기 시작하였다.

19세기말부터 일본반동들은 명치정부의 주관밑에 군사용지도들에 조선동해를 표기하면서 처음에는 조선인민의 반향이 두려워 조선해-《일본해》를 병행하여 쓰다가 1905년 11월 17일 《을사5조약》을 날조하는 방법으로 조선을 완전히 강점한 다음부터는 일반지도에 까지 《일본해》로 완전히 날조하여 기록하였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고시 40호》를 남몰래 조작하여 독도를 저들의 현에 소속된 한개 섬으로 날조하고 후날 그 주변의 동해령역까지 빼앗으려고 간교하게 책동하였다.

조선동해에 대한 《일본해》표기책동은 전적으로 근대시기 조선동해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화의 산물인것이다.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 40여년동안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날

조하여 력사기록과 군용지도들에 서술하였으며 조선의 애국적인 지식인들이 지도에 《조선동해》라고 기입하는것마저 가로막았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를 국제적으로 인식시키고 《합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날조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한것이다.

1919년 국제수로기구가 창설되고 1920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대양과 바다의 명칭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가 토의되자 일본반동들은 제마음대로 조선대표가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날조하여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1926년 국제수로국회의에서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날조하는 범죄적인 결정이 채택되었으며 이것은 조선인민의 의사와 자주권이 무시된 비법적인것이였다.

력사적사실들은 일본반동들의 《일본해》표기가 조선에 대한 침략과 날조로 일관되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동해에 대한 《일본해》표기가 일본반동들의 란폭한 력사의곡행위로 되는것은 셋째로, 현재 지명표기에 대한 국제법에도 완전히 어긋나기때문이다.

바다이름표기에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법적요구가 있으며 이것을 무시할 때에 해당 나라들에 대한 주권침해로 된다.

바다표기에 대한 일반적기준과 국제법적요구를 보면 바다(연안해)들은 그 주변에 있는 지리적대상들가운데서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상의 이름으로 하거나 섬들사이에 있는 바다들은 주변의 섬들가운데서 가장 유명한것들의 이름으로 하며 만약 바다주변에 이러한 기준지명이 없는 경우에 바다의 특성이나 바다를 처음으로 개척한 탐험가들의 이름을 반영하여 이름을 붙이기로 되어있다.

현재 60여개 되는 세계의 바다들에 대한 이름은 다 이런 관례에 따라 표기되어있다. 실례로 우리 나라 동해와 같이 연안해가 20여개나 되는데 그것은 《조선서해》, 《조선남해》, 《발해》, 《중국동해》, 《중국남해》, 《오호쓰꾸해》, 《발뜨해》, 《바헨쓰해》, 《까라해》, 《아덴해》, 《기네만해》, 《니구리아해》, 《피레나이해》, 《아드리아해》, 《마르까라해》, 《축지해》 등과 같이 대륙표기의 우의 원칙에서 이름이 유래되였다.

바다를 개척한 탐험가들의 이름에서 유래된 바다이름은 《베링그해》, 《태조먼해》, 《벨링스하우징해》, 《랍제브해》이고 바다의 생태학적특성을 고려한 바다이름은 《백해》, 《홍해》이다.

이밖에 바다이름은 대륙과 멀리 떨어져있어 대륙과 상관이 없거나 개척자들이 발견한것이 없으며 바다의 특성이 없는 경우에야 섬의 특성을 살려 바다이름으로 하였다.

동해라는 이름은 이러한 국제법적관례에 따라 바다주변 대륙동쪽의 바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것이며 먼 옛날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이름과 결부되어 표기된 이름이다. 따라서 바다이름의 세계적추세와 관례를 보아도 역시 조선동해표기의 정당성과 《일본해》표기의 부당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처럼 조선동해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일본해》표기는 지명표기에 대한 국제법과 관례에 위반되기때문에 란폭한 외곡행위로 된다.

현시기 일본반동들이 《일본해》표기를 계속 주장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주의적인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실현하려는 야망으로밖에 달리 해석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침략적이고 파렴치한 조선동해에 대한 지명표기외곡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